

소방관 절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광주지역 715명 조사...4명중 1명 우울증 경험

광주지역 소방관 절반 가량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과정에서 충격과 부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립나주병원과 광주소방안전본부, 서구정신보건센터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광주시 소방관 715명의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48.4%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했다.

조사대상 소방관들의 평균 나이는

40.4세로 평균 근무기간은 12년이었다. 일반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율은 평균 1~14%에 불과한 점으로 미뤄볼 때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정도로 높은 것이다.

증상별로는 '사건과 관련된 장소나 사람을 회피 증상'을 62.8%가 경험해 가장 빈도 수가 많았고, 불안감과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각성 상태 지속'이 62%, 동료의 사고 등 주요 사건이 계속 떠오르는 '재경험 증

상'도 60.7%나 됐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가요인으로는 ▲높은 업무 부담감 ▲취약한 사회지도 ▲낮은 출동 횟수 ▲높은 출동 충격도 ▲높은 상해불안도 ▲업무수행 중 동료의 사망 또는 상해 목격 등이 꼽혔다.

이 같은 증상은 나이가 41~50세로 근무기간이 11~15년되는 '구급대'와 '화재진압' 근무분야 소방관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예인 자살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의 경우도 소방관 4명 중 1명 이상(25.7%·일반인은 5~10%)이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일반적인 정신건강 상태 조사항목에서는 37.7%(일반인 25%)가 '위험수준'으로 분류됐다. 이 역시 근무기간 11년 이상, 구급대와 화재진압 대원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국립나주병원 의료부장 배안 박사는 "사고 현장을 자주 목격하는 소방관들은 일반인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방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치료가 절실히"라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



우리는 '몰래 산타' 겨울사랑청년회와 광주푸른청년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몰래산타광주분부는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서 '사랑의 몰래산타 발대식'을 가졌다. 광주지역 '1004'명의 몰래산타들은 산타학교에서 율동과 노래, 실제 산타가 되어 방문했을 때 상황 등을 익힌 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복지시설과 소외계층 가정 300여곳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게 된다. /위지람기자 jrwi@kwangju.co.kr

상복 터진 복구 공공·민간분야 잇단 수상

'함께해요, 잘 사는 복구'를 표방한 광주시 복구가 공공·민간분야에서 잇따라 큰 성과를 받았다.

7일 복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로 선정돼 13억원의 사업비를 받는 등 전국 기초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국가생산업 대상 등 31회에 걸쳐 16억6천만원의 상 사업비를 획득했다.

또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우수상, 기업사랑 운동 우수 혁신사례 선정, 에너지 절약 시책평가 최우수상, 모자보건사업 평가우수상, 금연 클리닉 최우수상 등 공공·민간분야에서 각종 상을 휩쓸었다.

송광운 복구정장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상급까지 받게 돼 구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살고 싶은 도시, 희망이 넘치는 복구'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alee@

광주시도시공사 '나누미 봉사단' 발족

임직원 200명 3개팀 구성 연중 지속 사회봉사 활동

광주시도시공사가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상(像)을 정립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나누미 봉사단'을 발족,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도시공사는 지난 5일 공사 회의실에서 임·직원 200명으로 구성된 3개 팀의 '나누미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탐방로 불우시설 방문 봉사와 자원보호 캠페인, 문화수도에 걸맞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등을 정기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공사측은 발대식 직후 생활이 어려운 노인세대와 홀로 사는 노인 40명을 초청해 '소외계층 이웃돕기 및 나눔행사(사진)'를 가졌다. 올해로 다섯번째인 이 행사에선 노인위안잔치를 베풀고 성금을 전달했다.

단원들은 같은 날 서구 화정동 '대광여성 청소년의 집'과 광주공원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광주지회'를 방문해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능력향상에 써달라며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또 6일에는 나누미 봉사단 운영팀이 한울교회 노인 의료복지관을 찾아 점심 도우미 등 자원봉사활동을 벌인 뒤 선물과 성금을 전달했다. 나누미 봉사단 건설팀은 지난 4일 '살라시오 나눔의 집' 방문해 생활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아울러 오는 22일 홀로 사는 노인 20세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매월 일정액을 생활비로 지원하고, 연 2회 이상 자원보호 캠페인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김영진 도시공사 사장은 "사회공헌 활동을 일회성이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사회 및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학동 삼거리에 소공원 조성

동구 22억원 들여...내년 상반기 착공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해쳤던 동구 시 동구 학동 삼거리 가로등이 절거되고 공원이 조성된다.

7일 동구에 따르면 '남문로'와 '증심사 진입로' 관련 역할을 해온 학동 삼거리의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롭게 조성될 학동 소공원에는 4천200주의 수목이 식재되고, 학동 삼거리를 상징하는 기념탑과 분수 등이 설치되고 자연과 지역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문화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미 매입이 끝난 부지 보상비를 포함해 22억원 가량이다.

동구는 학동 소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증심사 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거주민들에게 소중한 문화쉼터 역할을 하는 하는 것은 물론, 의재공원과 우재길미술관, 동적골 산책로를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벨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도심공원은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힘이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척도"라며 "학동 소공원이 다양한 도시문화를 생산해내는 문화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

내년 기술개발 지원 과제 17건 선정

기술연구원 호남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 기술지원본부(본부장 강창석)는 내년도 첨단부품소재 인프라구축사업 기술개발 지원과제로 '니켈-수소 이차전지개발' 등 17건을 선정했다.

조선대 양인영 BK21 사업단장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된 17개 과제는 ▲'대면적 포켓식 대응량(1500

AH) 니켈-수소 이차전지개발' 등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 13건 ▲'저탄소자동차용 엔진부품용 내열 저마모 나노코팅층 형성' 등 원천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공통 핵심기술 개발사업 4건이다.

본부측은 선정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이달 중 중소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내년 1월 평가위원회 심

의를 거쳐 2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기술개발사업 지원은 올해까지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107억원(73개 과제), 공통 핵심기술 개발에 117억원(38개 과제)을 각각 지원했으며, 이를 토대로 특허 29건, 실용신안 1건 등의 인프라 구축 성과를 거뒀다. /정후식기자 who@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 1052) 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 1082) 227-9970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02-2131-2979

한라산 등반 초특가 세일!!!

1박2일 79,000원
7박3일 99,000원

무엇을... (주) 뉴 블드컴퍼니 (회장: 박철도) 고속철리